

2장 교의신학의 역사와 문헌

? 교리와 신학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했나

성경은 신학 교과서가 아니며, 교의신학은 교회 전체가 성경을 함께 묵상해 얻은 열매다. 전통을 깎아내린 하르낙도, 교회 권위를 과장한 로마 가톨릭도 아닌 종교개혁의 길이 옳다. 초기 신학은 외부 공격과 영지주의에 맞선 변증에서 태어나 삼위일체·기독론 공의회로 자랐다. 동서방의 흐름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절정에 이르고, 중세 스콜라주의는 유명론으로 흔들렸다. 종교개혁 이후 루터파와 개혁파는 정통을 세웠으나 근대 사상의 도전 속에 쇠퇴와 위기를 겪었다.

용어 먼저

교의(dogma)	교회가 성경에서 길어내 공식으로 고백한 핵심 진리
변증	기독교를 향한 비판에 이성과 논증으로 답하는 일
영지주의	물질을 악으로 보고 비밀 지식으로 구원을 말한 사상
스콜라주의	교리를 원리로 삼아 논리로 체계화한 중세 학문 신학
유명론	보편 개념의 실재를 부정해 신학의 확실성을 흔든 입장
중재신학	기독교와 당대 철학을 절충해 화해시키려는 신학
이신론	계시 없이 이성만으로 종교를 설명하려는 근대 사상

구조도 · 교의 역사의 흐름



핵심 주장

1. 교의신학은 개인의 작업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성령 안에서 쌓아 온 결실이다.
2. 하르낙의 '교리 없는 복음'도 결국 자기 교리로 교회 교리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
3. 신학은 교회 안 교육용이 아니라 외부 공격에 답하다 철학의 도움으로 시작됐다.
4. 변증가에게 철학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었고, 영지주의에게는 내용 자체였다.
5.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지식과 하나님 지식을 두 기둥 삼은 최고의 교의학자다.
6. 루터파는 '내 구원'을, 개혁파는 '하나님의 영광'을 핵심 질문으로 삼았다.
7. 종교사 방법처럼 신앙의 현신을 빼고 모든 종교를 중립으로 다루는 일은 불가능하다.
8. 교의 역사는 후퇴도 있었지만 전체로는 진보하며, 성령이 앞날의 진보를 보증한다.

성경 근거

엡 3:19	성령은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쉬지 않음
마 16:18	로마가 사도좌·보편 지위의 근거로 삼은 구절
마 5-7	하르낙이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한 산상설교
전 6	디 모어 저작 '전6권'의 오표기로 보임
전 9	피트리נג 저작 '전9권'의 오표기로 보임
전 10	콤리 저작 '전10권'의 오표기로 보임

오해 → 바른 이해

× 교리는 그리스 철학이 복음을 오염시킨 것이다	✓ 변증가는 철학을 형식적으로만 썼고 복음이 참 철학이다
× 교회의 공식 가르침은 무오한 권위다	✓ 성경에서 나오고 성경 기준을 따르는 전통만 인정한다
× 신앙은 초보용이고 지식이 더 높은 단계다	✓ 신앙과 신학은 양의 차이일 뿐 질적 차이가 없다
× 모든 종교를 중립적으로 연구해야 학문적이다	✓ 신앙 헌신 없는 중립은 불가능하며 교의학의 종말이다

“교의는 성령의 인도 아래 교회가 성경을 묵상해 온 역사의 열매다”

☞ 나는 교회가 수백 년 고백해 온 교리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가?

☞ 내 믿음은 '내 구원'에 머무는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바라보는가?

빛다방 학습 노트 ·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요약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